

저자: Edward Hughes

삽화: Lazarus

각색: Ruth Klassen

번역: Helen Hwa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14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다윗왕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사울왕 때보다 10배나 더 큰 왕국으로 성장하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는 지치고 나약해진 몸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살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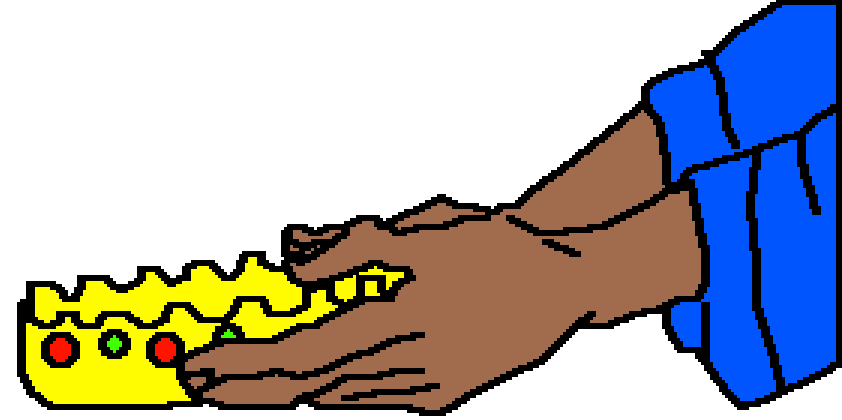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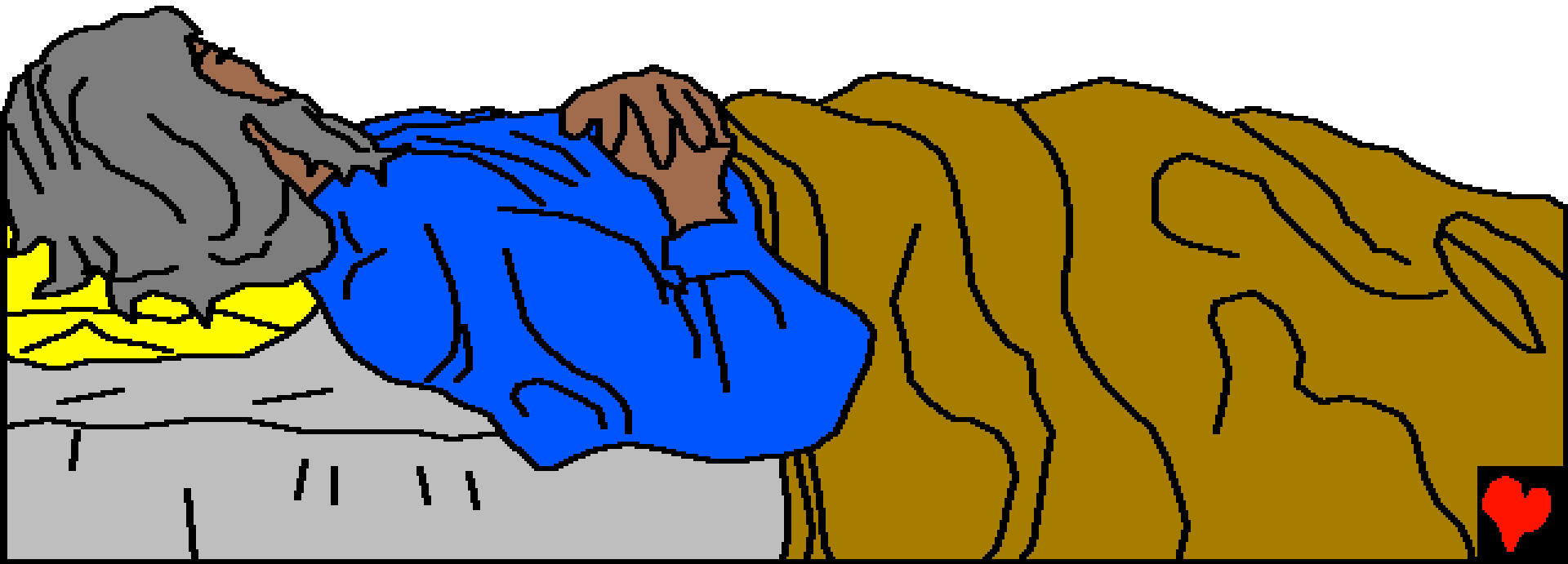
다윗의 여러 아들 중의 하나인 아도니야가 이제부터는 자기가 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었지만 그는 실상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허약해진 틈을 타서 그의 왕국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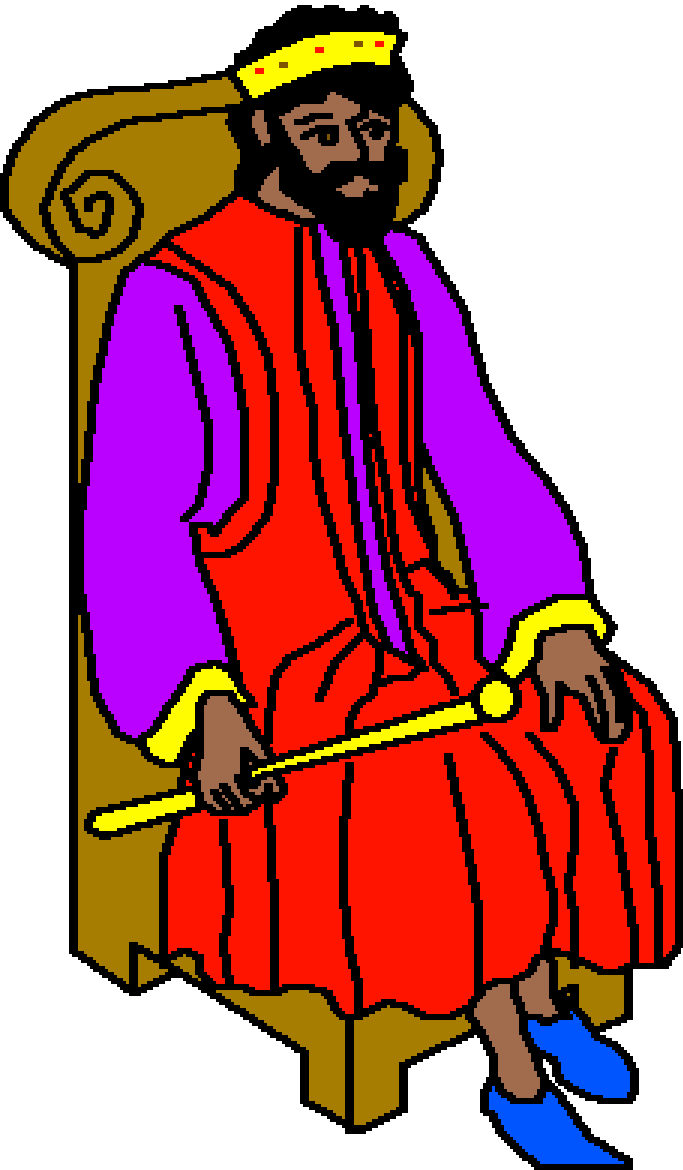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윗에게 아도니아의 계획에 대해 알려 주었지요. 다윗은 힘든 몸으로 그의 부하들을 불러 모으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포하였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임을 선언한 후, 머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났어요.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순종함과 좋은 왕이 되는 법들을 훈계하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는 교훈이었지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좌에 앉게 되면서 왕국은 굳건히 세워졌지요.



어느날 밤, 솔로몬이 꿈을 꾸었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였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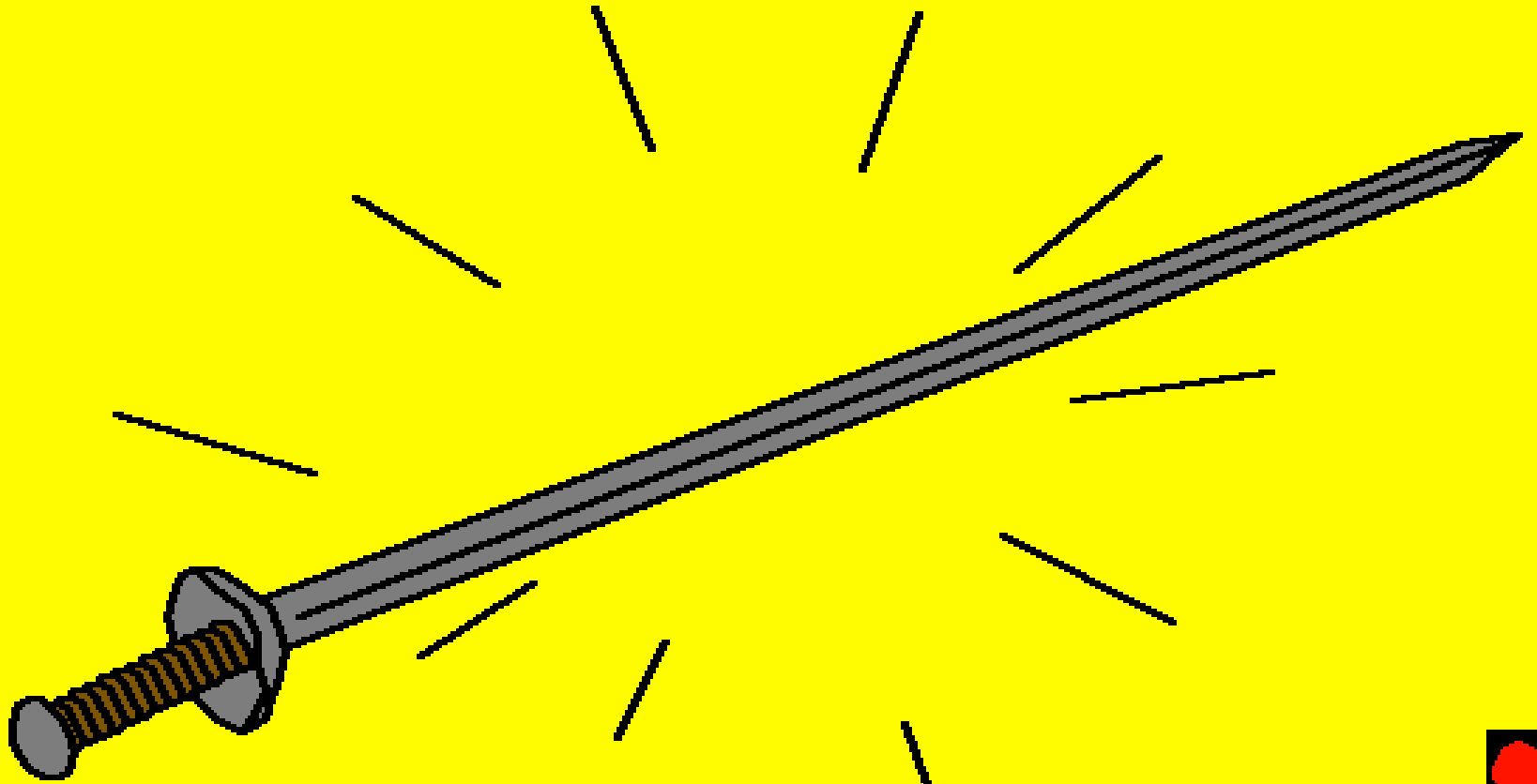
솔로몬은 선왕이 되기 위한 지혜
를 구했지요. 이 어린 왕의 구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구한 것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도
겸하여 받게
되었어요.



오래지 않아,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의 소식을 사
람들은 접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를 찾아왔어요. 한 여인이 말하기를
“저 여자의 아들이 간밤에 죽게 되자 내 아이를 훔쳐
가고 죽은 아이를 제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은 부인하며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아이가 제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솔로몬 왕은
어떻게 누가 진짜 엄마인지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왕은 “내게 칼을 가져오너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 왔지요. 과연 그 칼로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일까요?



“살아 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두 여자에게 반 쪽씩 나누어 주거라.” 라고 왕은 지시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는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절대로 아이를 죽이지는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우리 둘
중 아무도 가지지 못하도록 그
아이를 나누어 주십시오.” 라
고 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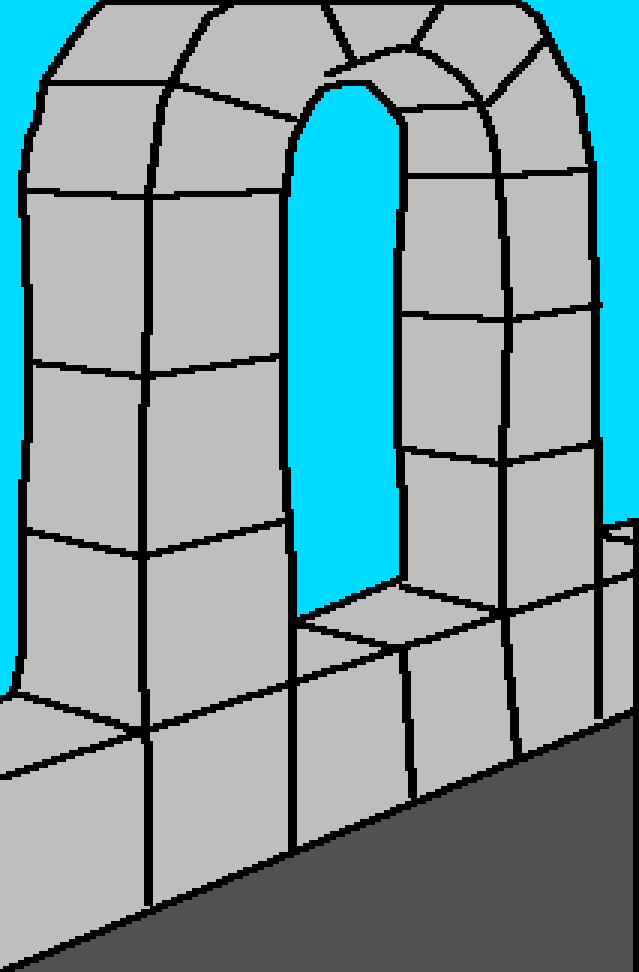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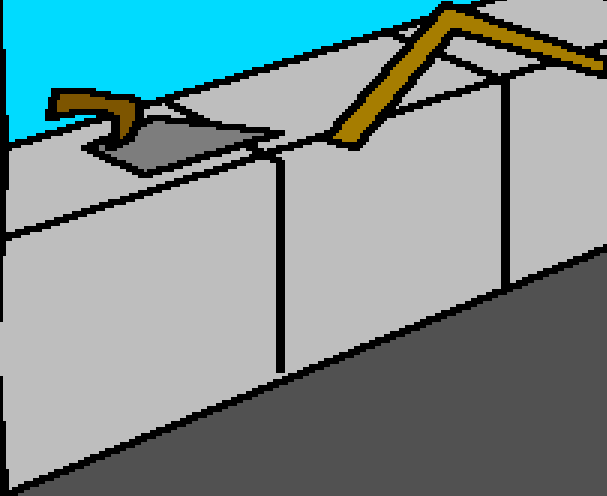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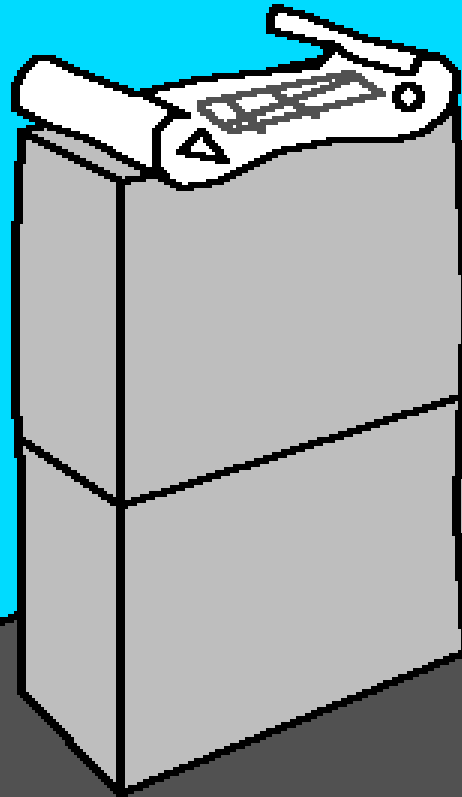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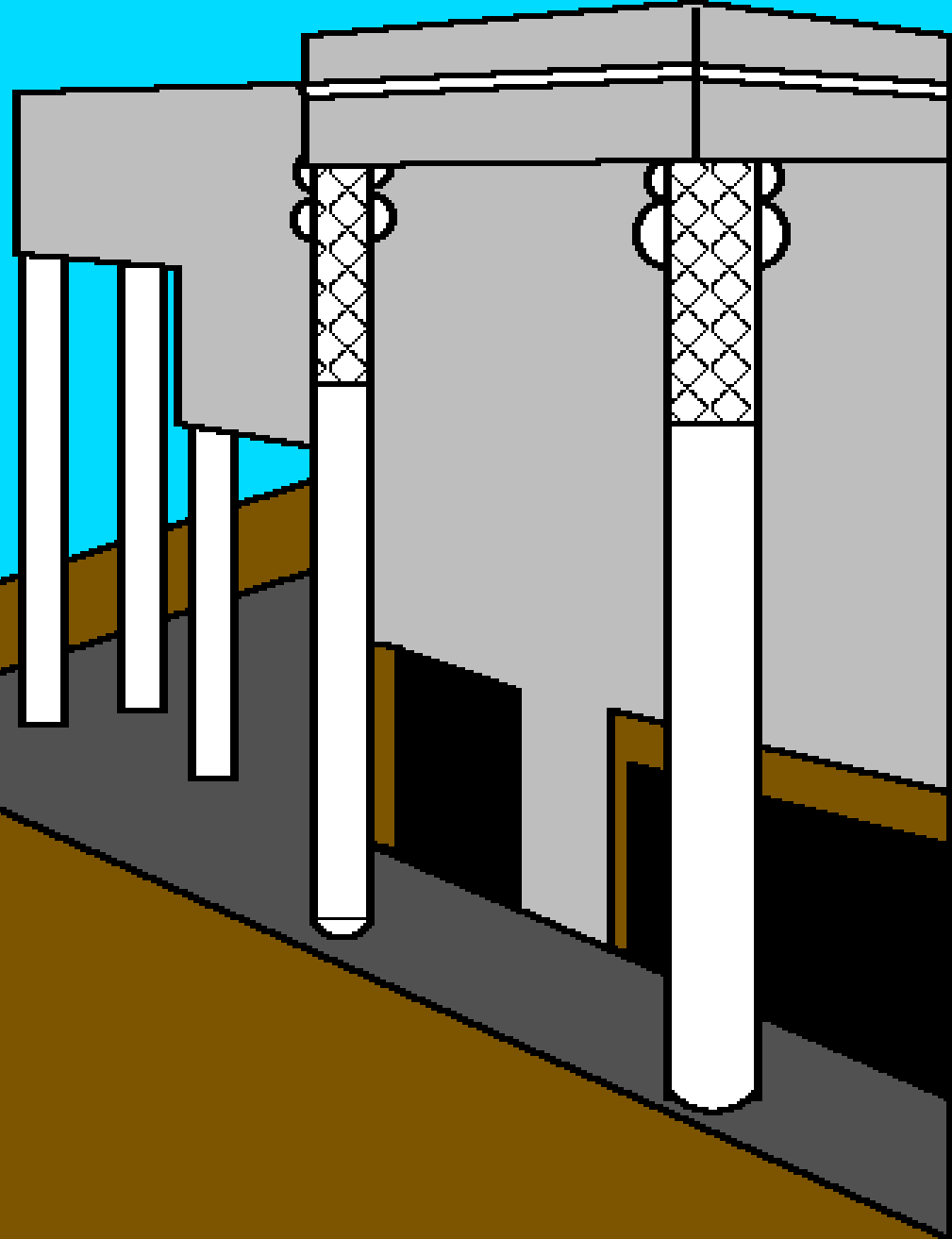
이에 왕은 “첫번째 말한 여자
에게 이 아이를 주거라. 그녀
가 이 아이의 어머니니라.”
라고 판결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왕
을 크게 존경하였지요. 하나
님의 지혜가 왕에게 있는 것
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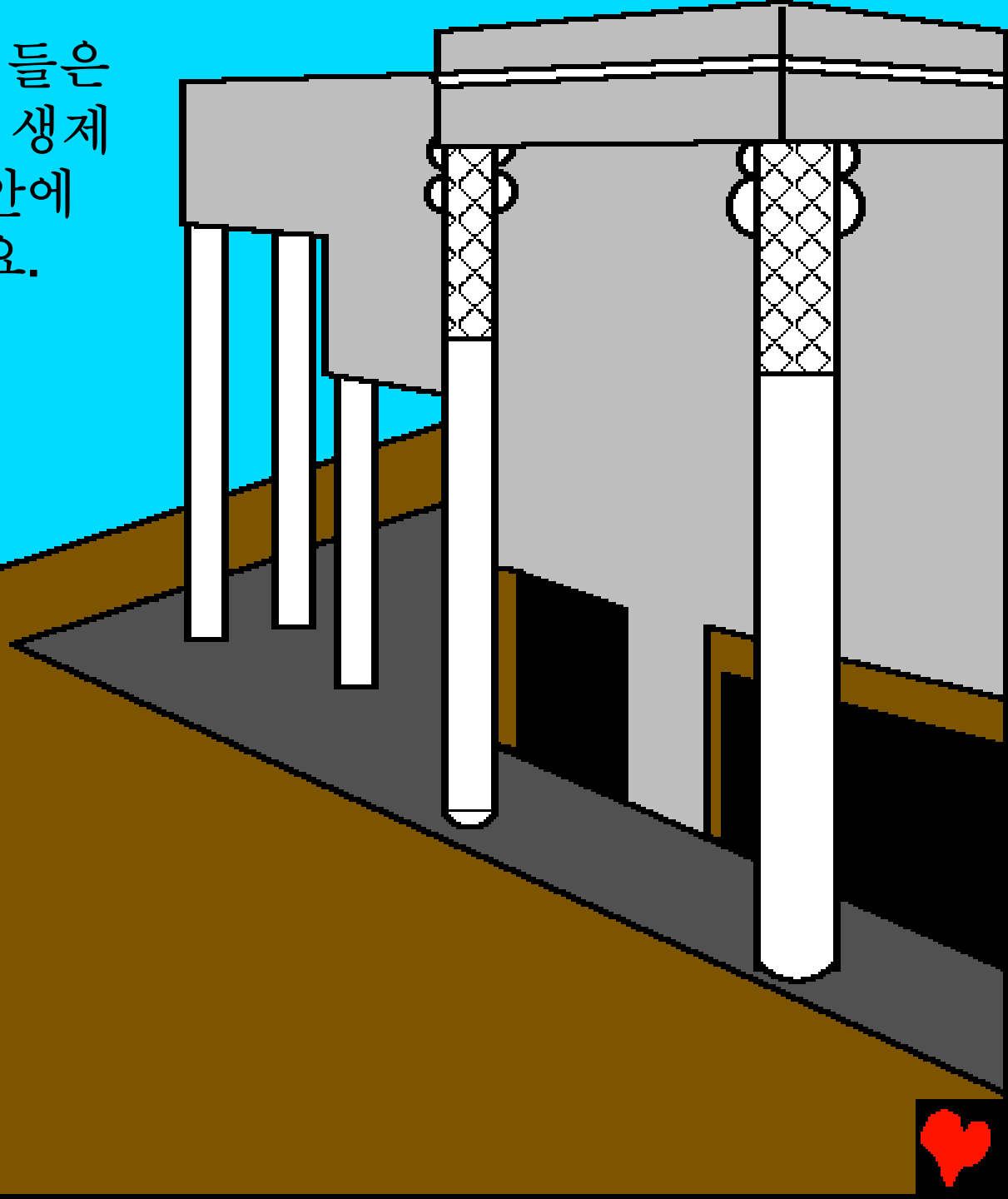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왕이 성전 건축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아주 근사한 성전을 지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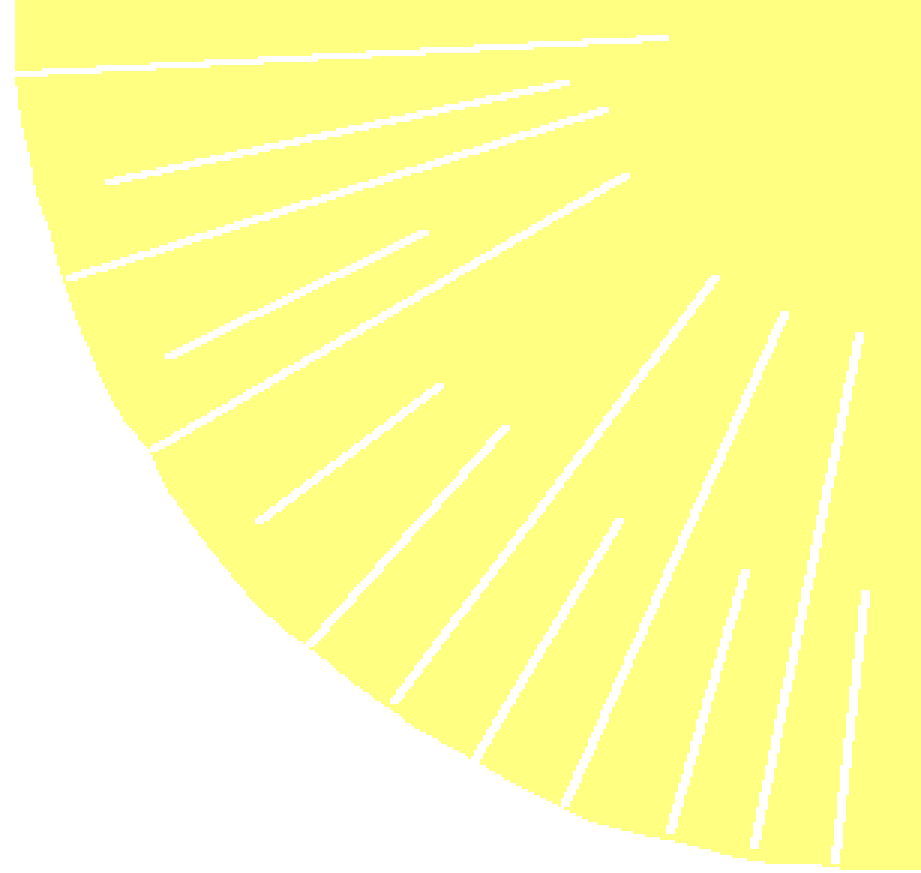
성전은 7년이나 걸려 완성
되었어요. 드디어 온 백성들
이 모여서 솔로몬 왕의 기도
를 들으며 성전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어요.



이 기도 후에, 왕과 백성들은
자원하여 천여가지의 희생제
물들을 바치며 이주 동안에
걸쳐 큰 잔치를 벌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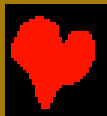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솔로몬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겠노라고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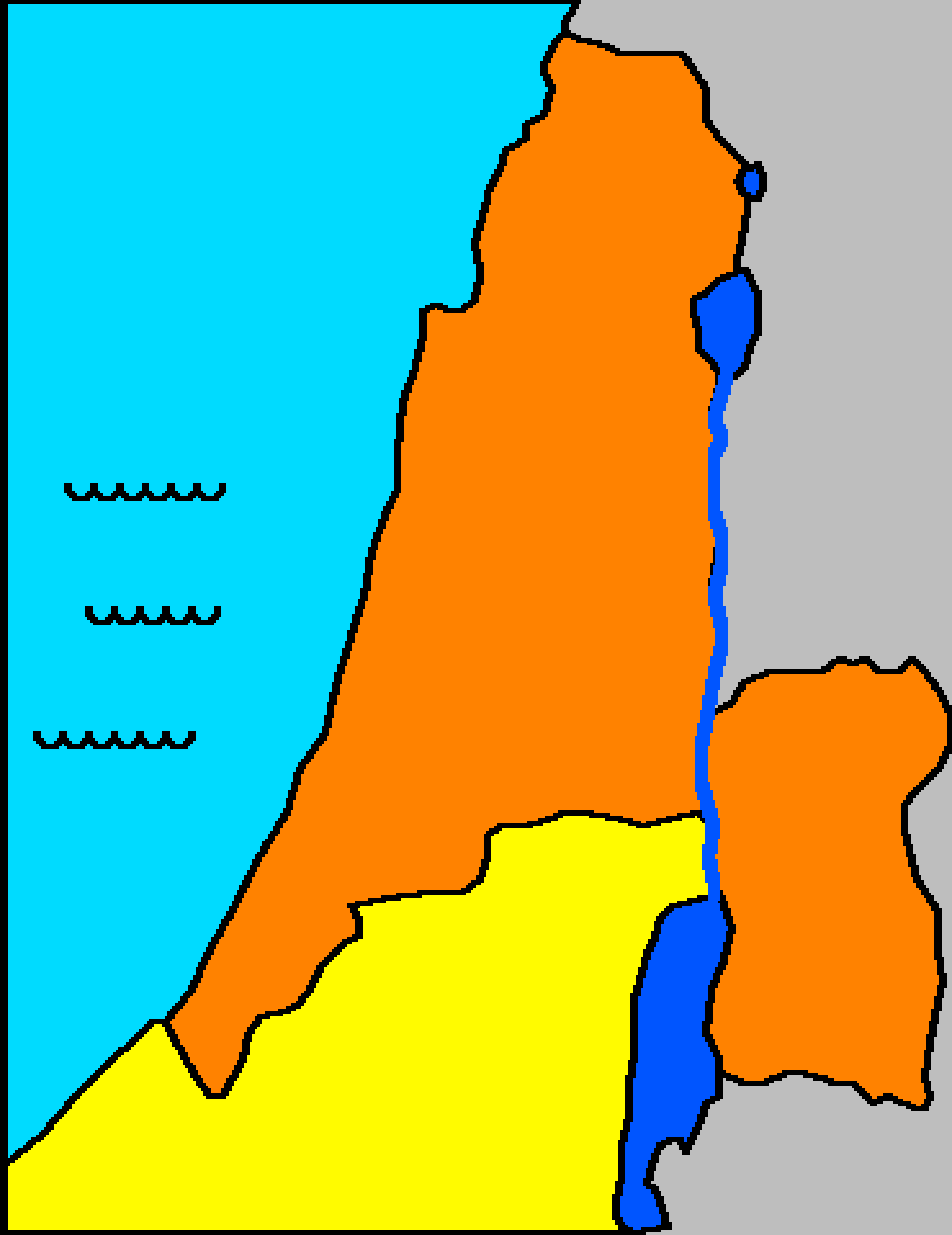


하지만 슬프게도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자들과 결혼하였지요. 믿지 않는 솔로몬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우상에게 뺏기게 하고 말았어요. 솔로몬 왕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던 때에 그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국을 나눌 것이며 여로보암이 열둘 중 열개의 부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어요. 여로보암은 급히 이집트로 피신하였지요. 솔로몬에게 붙잡히면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솔로몬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인 르호
보암 왕은 백성들에게 솔
로몬 때보다 저 심한 세
금을 독촉했어요. 열개의
부족들이 이에 반대하여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
웠어요. 솔로몬의 대 왕
국은 선지자가 예언한 것
처럼 이제 둘로 나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불순
종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축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
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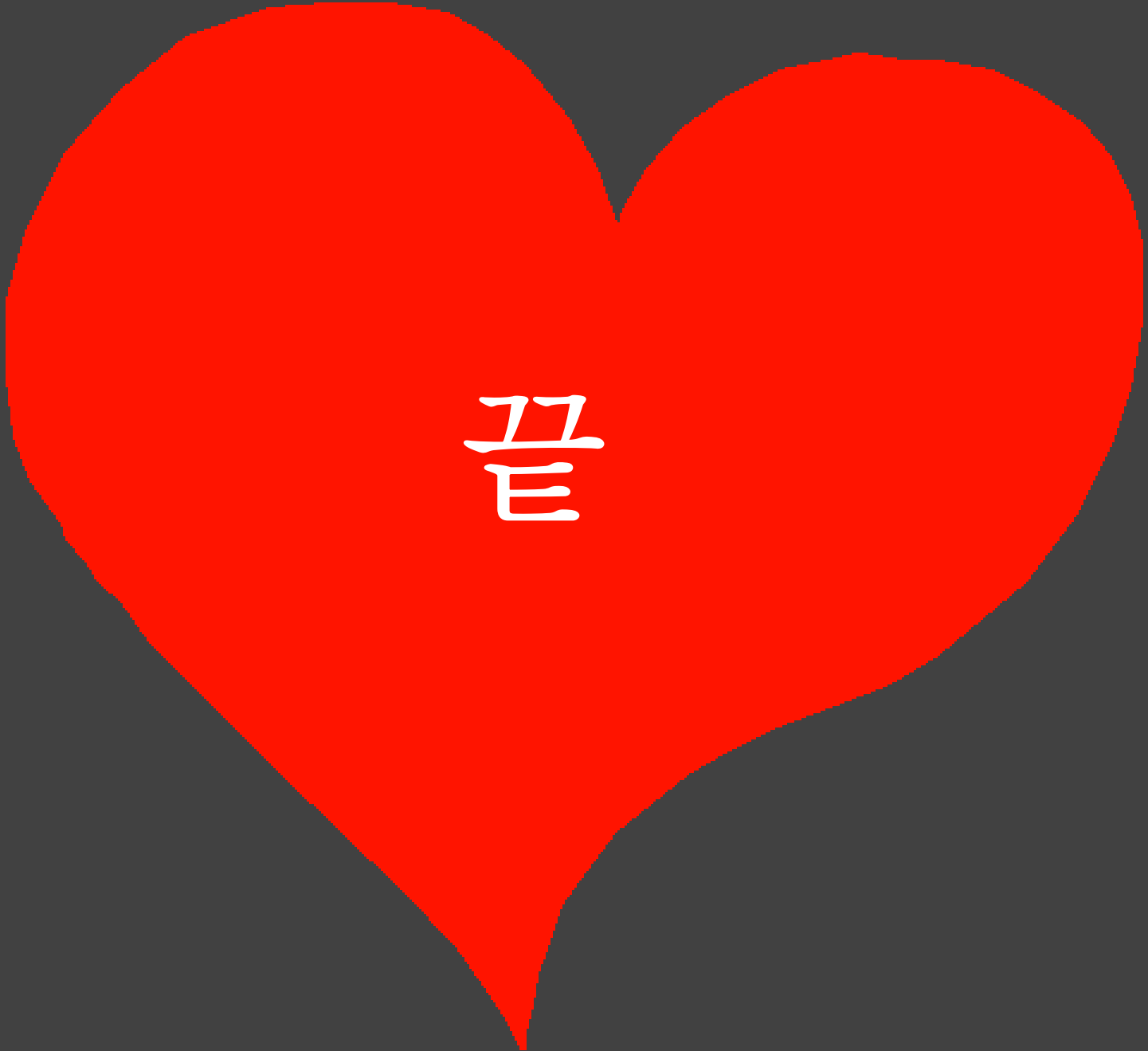
지혜로운 솔로몬왕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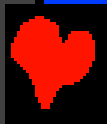
열왕기상 1-12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